

# 100년전 유길준의 발자취를 따라서

## 법학자 최종고교수의 「신서유견문」

한국인 최초의 서양방문기로 유명한 「서유견문」의 발자취를 그대로 되밟아본 독특한 기획문집 「신서유견문」(웅진출판)이 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에 의해 집필돼 나왔다.

「서유견문」은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구한말 험기넘치는 한 개화파 청년이 미국과 유럽의 50여 도시를 탐방하며 그 나라의 제도와 풍습, 문물을 소개한 진중한 내용의 책이다. 때문에 그는 그런 '진보성'이 문제가 되어 쇠국정치하의 조건에 돌아와서는 7년여 동안 연금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저자는 "일본에서는 서양시찰단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어 일본근대화를 성공케 했는데, 우리는 유길준 같이 직접 서양문물을 배운 지식인이 개화파로 몰려 '선각자의 꿈'이 좌절되는 바람에 근대화를 못이루고 중국엔 독립마저 상실한 것 아니냐"면서, "개방과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며 '제2의 개화기'를 말하는 요즘, 유길준이 조선의 개화를 꿈꾸며 서양의 문물을 돌아보았듯 나는 '어떤 생각과 자세가 진정한 세계화, 성공적인 개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다"고 「신서유견문」을 계획하고 집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 「서유견문」 본문도 함께 수록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8개국 37개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저자의 「신서유견문」은 1백년전과 비할바없이 원활해진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17개국 55개시를 둘러보고 있다. 여정은 1세기전 선배가 간 곳을 답습하고 있지만 관점은 저자 자신의 관심사에 충실하고 있다.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유길준과 저자의 글을 한 지면에**  
**수룩한 형식상의 독특함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최근의 개방화**  
**국제화 구호가 자칫 구호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자가 서방 '다시보기'를 시도,**  
**독자들에게 '개화'의 진정한**  
**의미를 환기시키는 데 있다.**

즉 유길준이 동양의 젊은이에게 충격의 대상이었던 서양의 민주정치, 법치주의, 각종의 근대적 문명시설을 눈여겨 보았다면, 저자는 법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위에 서양의 정신문화가 어떻게 결실되어 있는지를 더 역점을 두어 살핀다. "아, 여기에 문명이 있구나" 하는 감탄구처럼 서양인들이 오늘날까지 가꾸고 간직해오고 있는 면면한 문화와 문명에 「신서유견문」의 관심은 맞춰져 있다.

내용구성도 흥미롭다. 세일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필라델피아, 에든버러, 글래스고, 파리, 아비뇽, 스트라스부르,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쾰른, 괴팅겐, 드레스덴, 바젤, 빈, 헤이그,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헬싱키 등 각 도시를 '견(見)' '문(聞)'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지면에서 바로 그 도시에 대해 쓴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같이 수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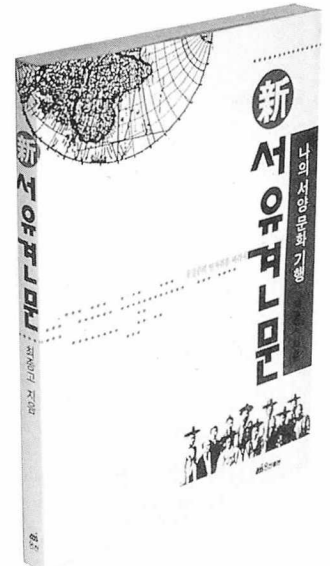


세일럼의 피비디박물관 안에 선 저자.

있는 점이다.  
 가령, "유길준으로 하여금 이태백의 '별유천지비인간'이란 시구를 연상하도록 매혹시킨 필라델피아, ...그곳의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에 가면 미국이 독립국가로 되어가는 과정이 다 모여 있다. 이곳은 1776년 7월4일 독립선언을 가결, 서명한 곳이다..."(최종고) "독립대회당(독립기념관 지칭)은 이 도시 중심지에 우뚝 솟은 굉장한 건물이다. 100년전 미국의 충의스런 지사들이 봉기하여 이 도시에 모여 이 당에서 대회를 열고 미국식 제도를 창건했던 것이다..."(유길준)

### 「진정한 개화는 아직 멀었다」 자만심에 경종

저자는 200년전 얘기를 법학자의 시각에서, 유길준은 100년전 사실을 놀라움으로 기술한다. 독립기념관에 대한 서술처럼 이 책 전체는 비교해가며 읽는 재미가 각별하다. 형식은



「서유견문」의 발자취를 따르고, 구성은 병렬을 취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지만, 저자의 집필의도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최근 세계사의 급변에 대응하는 우리의 '소극적' '우물안 개구리식'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진정한 개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개화'를 계몽주의라 이름 붙여 지난시대의 이데올로기로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아직 개화의 과제가 곳곳에 남아 있다. 물질적으로 다소 풍요롭게 되었다 해서 개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서양은 물질문명에서만 아니라, 이 런면에서도 우리보다 한발짝 앞서가는 곳이다.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개화는 물론 세계속의 한국인이 될 수 없다."

— 정혜옥 기자

### ■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탁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선지자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크우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가 : 5,000원(각권)

- 총 10권의 고크우영 대하 만화소설—만화십팔사략!
- ① 심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⑤ 후한(後漢)시대
- ② 춘추(春秋)시대    ⑦ 삼국(三國)시대
- ③ 전국(戰國)시대    ⑧ 남북조(南北朝)시대
- ④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⑨ 당(唐)의 흥망
- ⑤ 항우(項羽)와 유방(劉邦)    ⑩ 북송(北宋) 남송(南宋)시대
- 총 10권 중 ① ② ③ 권은 절친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